해넘이·해맞이는 전남에서 …

목포~제주 왕복 크루즈선 타고 선상 축제

고흥 남열 해수욕장 해오름 불꽃쇼 등 행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9년 새해를 힘차게 맞기 위한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남지역 각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여수시는 31일~1월 1일 돌산읍 임포마을에서 '새빛 새희망 천년의 해오름'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여수 향일암 일출제'를 개최한다.

금오산 해넘이 감상을 시작으로 송년 풍물 길놀이, 소망 촛불의식 등 다양한 송년행사가 이어지며 자정에 향일암에서 제야의 종을 타종한다.

새해맞이 행사로는 비나리 기원굿, 일출기원제례, 소망 실은 풍선 날리기, 소원엽서 띄우기 등 지난해보다 간소화하면서도 탐방객 중심의 축제로 치뤄진다.

목포시는 31일 시내 중심가인 로데오 거리에서 액털이 접시깨기, 희망의 촛불행진 등 연말 송년축제에 이어 1일 대형 크루즈선 선상에서 신년 일출을 보는 '2009 선상 해맞이 축제'를 마련한다.

선상 해맞이 축제는 1일 오전 6시 2천여 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목포~제주를 왕복하는 1만7천t급 대형 크루즈선인 '퀸메리호'에 승선해 시립 교향악단 및 합창단 공연과 새해맞이 희망풍선 띄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다도해상에서 새해 일출을 감상한다.

완도군은 완도읍 동망산 완도타워 광장에서 '청해진 12군고(軍鼓)' 공연으로 새벽을 밝히고 일출과 동시에 소원성취를 비는 풍선 날리기, 연날리기, 일출 기원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76m 높이의 완도타워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다도해 섬들과 어울려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안농협에서는 380t급 대형 여객선을 띄워 횡간도앞 해상에서 선상 해맞이를 한다.

일출행사에 앞서 31일 밤에는 완도타워에서 연출되는 화려한 레이저쇼를 볼 수 있다.

고흥군은 1일 영남면 남열리 남열 해수욕장에서 해오름 불꽃쇼를 비롯해 소망풍선과 소원풍등(風燈)을 날리는 '고흥 남열 해맞이' 행사를 펼친다. 일출 전후로는 가족영화 상영과 고흥 문화예술단 공연, 새해 7080 기축년 새해 콘서트가 마련되며, 영남면 번영회에서 2천500명분의 떡국을 제공한다.

해남군은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31일 해넘이 대제와 송년 음악회, 강강술래,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해넘이 행사가 열린다.

1일에는 선착장 무대에서 길굿을 시작으로 띠배띄우기, 소망 풍등 올리기, 국토순례단 희망 발대식, 선상 해맞이 등이 펼쳐진다.

영광군 역시 백수읍 청년회 주관으로 31일 오후 2~6시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백수 해안도로 일원에서 해넘이 이벤트를 개최한다.

바리춤 전통무용 전수팀(7인조)의 해넘이 기원제를 시작으로 희망의 풍선 날리기, 불꽃놀이, 촛불 소원빌기, 해안도로 상징탑 점등식 등이 펼쳐진다.

장흥군은 정남진과 용산 남포, 안양 여다지, 회진 한재공원, 천관산 정상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정남진에서는 해맞이 풍물놀이와 선박 퍼레이드, 해상불꽃축제 등이 진행되며 관광객에게 떡국과 차가 제공된다.

한편 31일 일몰시각은 여수 오후 5시 28분, 가거도 오후 5시 40분이며 새해 1월 1일 일출시각은 여수 7시 36분, 목포 7시 42분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전남 해넘이·해맞이 행사

지역	장소	문의전화(061)
목포 ⛵	로데오 거리/퀸메리호	1577-3567
여수	향일암	690-2042
완도 ⛵	완도읍 동망산	550-5237
고흥	영남면 남열해수욕장	830-5305
해남 ⛵	송지면 땅끝마을	530-5919
영광	백수 해안도로	350-5752
장흥	정남진·남포 등	860-0224

※ ⛵ 선상 해맞이

나주시, 기업 투자유치 큰 성과

연말까지 남양유업 등 28건 4천억 달해

나주시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 동력으로 역점 추진해온 투자유치가 큰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외지 기업들의 투자유치 실적은 23건, 3천121억원에 이른다.

이달 중에 문평 농공단지와 나주생물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 5곳과 투자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어 규모는 4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진 업체도 남양유업 호남공장 등 15곳에 1천200억원이며, 고용효과는 476명으로 집계됐다.

나주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완료한 업체는 727억원이 투입된 남양유업 호남공장을 비롯해 100억원을 투자한 한국3M AF3라인 준공, 기능성 인체관리수를 생산하는 ㈜사이언스 워터의 본사 이전, SK 광대역 나주 콜센터 입주 등이다.

경기침체에도 나주시가 이같은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것은 수도권 기업들이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산업단지를 선호한다는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선(先) 산업단지 조성, 후(後) 기업유치'로 발 빠르게 대응한 데 힘입은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투자기업에 대한 유인책 확대와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 금융지원 협약 등 맞춤형 투자유치도 한몫 거들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투자유치 여건 악화가 우려되지만 우수한 투자지원 시스템과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투자불패'의 신화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전복 드라마' 유치 어민들이 나섰다

노화도 주민들 성금 완도군 전달

681 어가가 연간 1천800t의 전복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전복 산지인 노화도 주민들이 11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김종식 완도군수와 차용우 군의회의장,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모금한 7천100만원을 완도군에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어민들은 전복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드라마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모금운동에 들어갔으며 모금운동에는 22개 기관 단체와 26개 마을 1천933명이 참여해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지방자치단체가 드라마 촬영 유치에 나선 적은 있어도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걷어 유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역주민과 군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려는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자 방송 드라마 제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만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민들이 드라마 유치에 나선 것은 지난 추석 무렵 노화도 전복양식장 등에서 촬영한 드라마 '식객'이 전국에 방영되면서 전복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쇄도한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성금을 받은 김종식 완도군수는 "노화도 주민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성금모금운동 사례는 전국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있는 일로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것"이라며 "방송국 섭외와 행정적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복을 홍보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함평 나비축제' 道 대표축제 자리매김

전남도 축제 평가서 1위

함평 나비축제가 '2009년도 문화관광 축제 추천 및 도 대표축제 선정 평가'에서 전라남도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도청 관광문화국 소회의실에서 도내 22개 축제를 대상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 축제 추천 및 도 대표축제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나비축제를 1위로 선정했다.

함평 나비축제는 나비라는 독특한 소재와 타 축제와의 차별성, 축제 주제 관련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 축제 현장의 시설연출, 관람객 만족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다채로운 분야의 자원봉사자로 행사에 참여한 것은 물론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직접 맡아 운영하는 등 주민 참여 분야와 행사를 관람한 관람객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환행 군 관광과장은 "이번 성과는 모든 공직자와 군민의 열정이 함께 만들어낸 것으로 관광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드리기 위해 내년 행사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 11회 함평 나비 대축제는 내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함평 생태하천 일원 109만㎡에서 개최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